사계절 푸르른 양잔디와 함께…
HAMPYEONG DYNASTY COUNTRY CLUB
주중 비회원 예약 및 5인 PLAY 가능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6-21
TEL.(061)320-7800 예약문의 (061)320-7700,7777

〈남궁웅〉

환상의 '형제 콤비' 보여달라

광주, 오늘 안방서 부산전
남궁도-웅 맹활약 기대
중위권 도약 여부 갈림길

프로축구 광주 상무가 안방에서 중위권 도약을 향한 막판 승부수를 띄운다.

광주는 26일 오후 7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부산과 2006 삼성 하우젠컵 홈 12차전을 치른다.

3승2무6패(승점 11)로 11위에 랭크된 광주는 이날 부산전의 승패 결과에 따라 중위권 진입 여부가 결정된다.

팀당 2경기씩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4위 울산과 6점의 승점차를 보이고 있는 광주는 이번 부산전에서 패할 경우 최하위권의 성적으로 컵 대회를 마감할 수도 있다.

다행히 광주는 역대 상대 전적에서 9승 2무 3패로 앞서있는데다 올 시즌 홈 경기 승률도 4승5무1패로 강한면을 보이고 있어 추가승수 쌓기에 희망적이다.

광주는 남궁도-남궁웅 형제의 발끝에 기대를 걸고 있다.

동생 남궁웅은 미드필드에서 공을 잡아 공격진에 정확한 패스를 연결하는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광주 상무 입대 후 그 기량이 한층 성장했다는 평가다.

형 남궁도 역시 뛰어난 골 결정력을 자랑한다. 적당한 패스 연결만 있다면 언제든지 골을 넣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어 부산의 골문을 열기에는 제격이다.

지난 22일 광주를 2-0으로 꺾고 단독 5위(5승2무4패· 승점 17)로 올라선 전남드래곤즈도 이날 오후 7시 광양전용구장에서 손쉬운 상대 대전(9위)을 상대로 상위권 탈환을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이번 컵대회 우승이 확정적인 FC서울은 이날 오후 7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라이벌 수원삼성을 제물로 6년만의 정상 등극에 도전한다.

8승2무1패(승점 26)로 1위를 질주하고 있는 서울은 이날 수원과 비기기만 해도 자력 우승이 확정된다.

2위 제주 유나이티드(6승2무3패·승점 20)와 승점차가 6이나 되기 때문에 서울로선 승점 1만 추가해도 오는 29일 전남 드래곤즈와 마지막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대회 우승의 주인공이 된다.

서울이 수원에 패해도 1시간 늦게 킥오프 되는 경남FC-제주전에서 제주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상금 1억원이 주어지는 우승은 서울의 몫이다.

지난 22일 인천 유나이티드전에서 결승골을 터트린 '축구 천재' 박주영(서울)은 인천전처럼 일단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후반 조커로 나서 골 사냥에 나설 예정이다.

또 500만원의 상금이 기다리고 있는 득점상 경쟁도 막판까지 불을 뿜을 전망이다.

부산 아이파크의 브라질 용병 뽀뽀가 7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울산 현대의 최성국이 6골로 바짝 추격하고 있다. 5골을 터트린 김은중(FC서울)도 언제든지 선두로 치고 올라올 수 있다.

한편 광주·전남은 이날 구장을 찾는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 및 유아에게는 무료 입장의 혜택을 제공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남궁도〉

아시안컵 대표팀 유럽파는 빠진다

베어벡 감독 입국
주내 명단 발표

2006 독일월드컵 16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잠시 낙심했던 한국 축구가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아시아 맹주' 자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태극전사 지휘권을 이어받은 핌 베어벡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은 꿀맛 같은 휴가를 마치고 26일 오전 11시45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지난달 29일 고국 네덜란드로 휴가를 떠난 베어벡 감독은 그동안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지인들을 만나면서 향후 대표팀 운영에 대한 구상을 마쳤다.

베어벡 감독은 휴가 기간에도 대한축구협회 기술국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코칭스태프 인선 문제와 아시안컵 예선에 대비한 선수 선발, 대표팀 소집일정 등을 논의했다.

26일 귀국하는 베어벡 감독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아시안컵 엔트리를 발표하는 것이다.

대표팀 소집이 8월 6일로 당겨진 만큼 소속팀에 최소 1주일 전에 차출협조를 통보해온 관례에 따라 베어벡 감독은 늦어도 이번주 안에 대표팀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이 되는 것은 내달 16일 예정된 대만과 아시안컵 예선전에 대비한 '1기 베어벡호' 명단이다.

대만이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49위의 약체지만 '감독 데뷔전'을 치르게 되는 베어벡 감독으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경기다.

일단 유럽파 선수들이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본 J-리거와 함께 국내파 선수들이 대거 기용될 예정이다.

유럽파가 빠지게 되는 1기 베어벡호에서 문제로 떠오른 포지션은 왼쪽 윙백이다.

베어벡 감독이 포백을 들고 나온다면 이영표(토튼햄)을 대신했던 김동진(제니트)이 러시아로 떠나면서 포지션 공백이 생기게 됐다.

다행스럽게 이을용(서울)이 K-리그로 복귀하면서 김정우(나고야), 백지훈(서울), 김남일(수원), 김두현(성남), 송종국(수원) 등 막강 미드필더 라인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베어벡 감독에게 큰 도움이다.

또 최전방에는 조재진(시미즈)와 더불어 이천수(울산), 정경호(광주), 박주영(서울) 등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MLB 날으는 좌익수 텍사스 레인저스의 좌익수 제리 헤어스톤이 25일 미국 텍사스주의 알링톤 볼파크에서 열린 뉴욕 양키스와 경기에서 7회 상대팀 알렉스 로드리게스의 안타성 타구를 잡아내고 있다. 이날 경기는 양키스가 6-2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축구대표팀 코치에 홍명보·고트비 임명

독일월드컵축구 이후 새로 출범한 베어벡호의 코칭스태프로 기존 압신 고트비(42·오른쪽)와 홍명보(37·왼쪽) 코치가 임명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5일 "핌 베어벡 감독의 추천을 받은 뒤 기술위원회 승인을 거쳐 대표팀 코칭스태프로 고트비와 홍명보 코치를 정식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두 코치의 임기는 베어벡 감독과 같은 2008년 8월까지로 2년간이다.

하지만 골키퍼 코치는 아직 정하지 않았으며 추후 임명할 예정이라고 협회는 덧붙였다.

KIA '피터팬' 한기주 1군 합류

'피터팬' 한기주(19·KIA)가 2군 강등 이후 15일만에 1군에 합류했다.

지난 10일 2군으로 내려간 한기주는 25일 1군에 합류, 대구구장에서 동료와 가볍게 몸을 푼 뒤 실전에 가까운 피칭을 했다.

전날 불펜 피칭 50개를 던진 데 이어 이날도 불펜 피칭과 시뮬레이션 피칭 각 30개씩 총 60개를 소화했다.

한기주는 빠르면 오는 27일 삼성전이나 늦어도 SK와 주말 홈 경기에 1군 엔트리 등록과 함께 선발 등판할 예정이다.

올 시즌 4강행을 꿈꾸는 KIA로서는 한기주의 합류가 큰 힘이다.

역대 최다 계약금인 '10억원' 을 받고 올 시즌 프로에 데뷔한 한기주는 15경기 등판해 4승 9패, 평균 자책점 4.63으로 그동안 부진한 성적을 보였고 KIA의 마운드 운용마저 어렵게 만들었다.

한기주는 결국 변화구의 컨트롤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0일 2군으로 내려가는 수모도 겪었다.

2군으로 강등된 한기주는 김태원 투수코치와 함께 제구력을 가다듬으며 2주일여만에 밋밋한 볼끝을 날카롭게 다듬었다.

한기주는 지난 21일 한화와의 2군 경기서는 상대 선발 조성민을 상대로 5이닝 2안타, 6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하기도 했다. 이날 최고 구속은 150km에 육박했다.

특히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돼온 볼끝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변화구의 제구력도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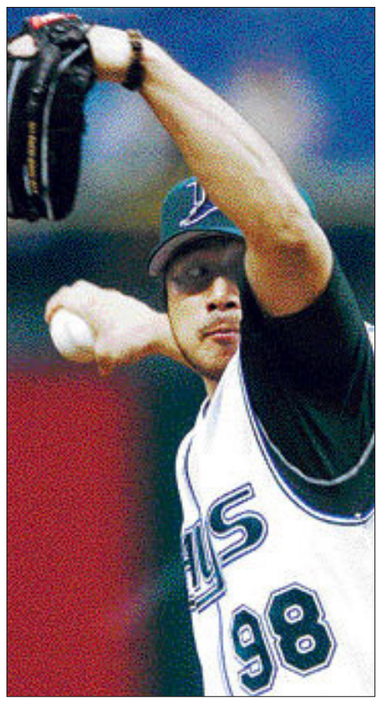
김태원 KIA 투수코치는 "하체가 안정되면서 볼 회전력이 높아졌고 볼끝의 움직임도 살아났다" 며 한기주의 후반기 활약을 자신했다.

한기주도 "이제는 자신감을 되찾았고 단점도 많이 보완됐다" 면서 "그동안 2군에서 많은 땀을 흘린만큼 후반기에는 팀 승리에 공헌하는 선수가 되고싶다" 고 의욕을 불태웠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서재응 7연패 '으악'

개인 최다 연패 불명예



서재응(29·탬파베이 데블레이스·사진)이 집중타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7연패에 빠졌다. 서재응은 25일(한국시간) 플로리다주 세인트 피터스버그 트로피카나필드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LA 에인절스 오브 애너하임과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 5이닝 동안 홈런 1개 포함 8안타를 맞고 6실점한 뒤 2-6으로 뒤진 6회 트래비스 하퍼로 교체됐다.

경기는 에인절스의 8-4 승리로 끝나면서 서재응은 시즌 9패(2승)째를 안았고 지난 5월29일 워싱턴전 이후 7연패 나락으로 떨어졌다. 탬파베이 이적 후 5번 선발로 나서 모두 졌다.

서재응은 지난 5월23일 콜로라도전에서 시즌 2승째를 올린 이후 16차례(선발 7번) 등판에서 7패를 안으면서 달갑지 않은 개인 최다 연패 기록을 새로 썼다. 종전 최다는 뉴욕 메츠 소속이던 2003년 거둔 6연패다.

아울러 지난 2003년 당한 시즌 최다패(12패) 경신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지난 2003년부터 풀타임 메이저리거로 활약한 서재응은 올해까지 7월에만 승없이 11패를 당해 해마다 7월이면 '악몽'을 겪었다.

이날 투구수는 90개, 스트라이크는 56개였다. 허용한 볼넷 4개 중 2개가 득점으로 고스란히 연결됐다. 평균자책점은 5.44에서 5.71로 올랐다.

서재응이 선발 등판했던 4경기, 23.2이닝 동안 단 3점만 지원했던 탬파베이 타선은 언제나 그렇듯 이날도 무기력한 공격으로 서재응을 전혀 도와주지 못했다. 5회 무사 만루 찬스에서 땅볼과 희생플라이로 2점을 벌어준 게 전부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